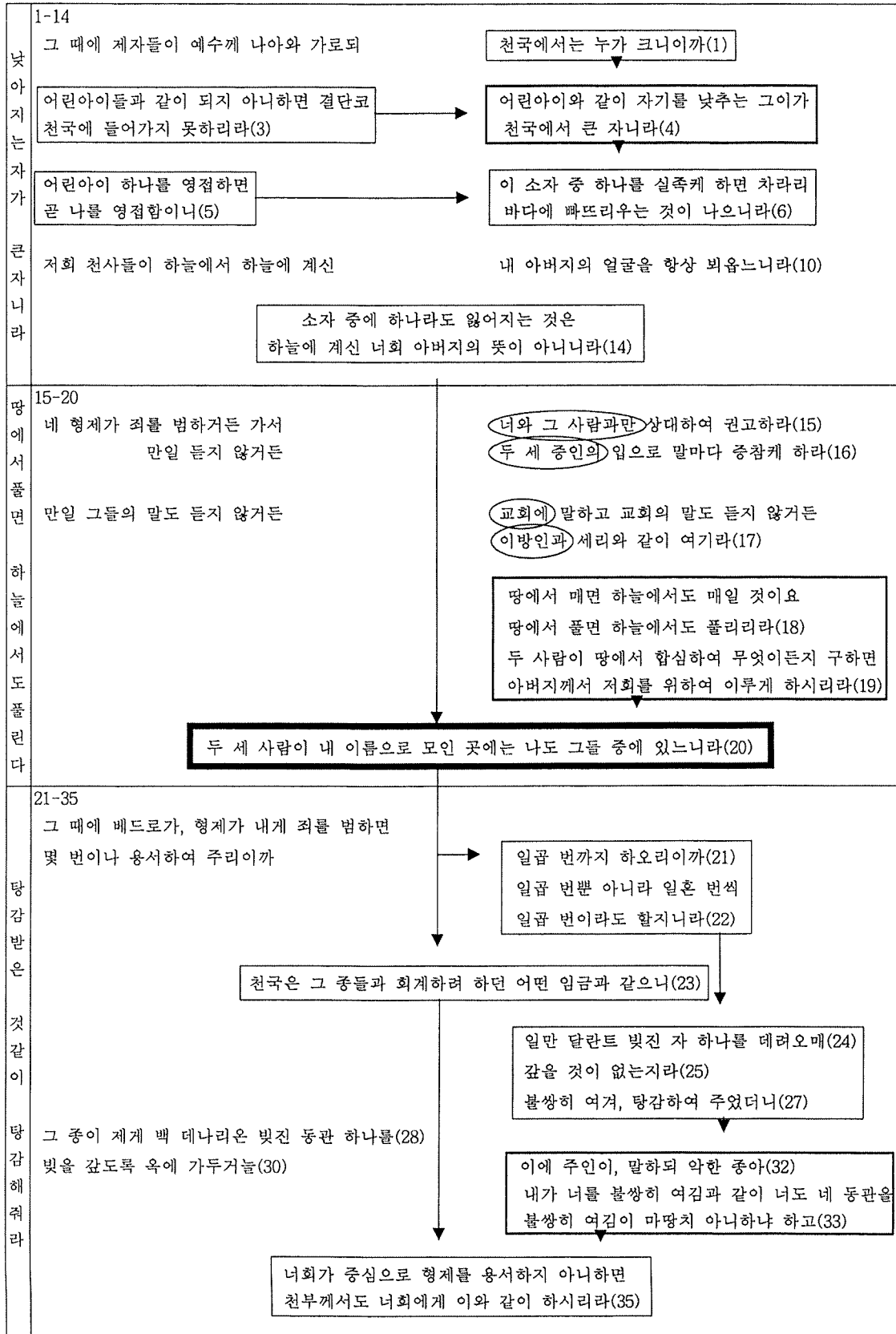


마태복음 18장 개관도표

주제 :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느니라(교회)



마태복음 18장,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있느니라

요절 : 20절,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8:1-19:1절까지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다섯 번의 설교 묶음 중 네 번째 묶음입니다. 그리고 18장의 중심주제는 교회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8장의 주제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있느니라”가 될 수가 있는가? 두 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점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 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눅 9:51)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심정으로, “그 집 사람을 말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어야”(24:45) 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18장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도들은, “두 세 사람” 씩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완전한 자들이 아니라, 불완전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낮아지는 자가 큰 자니라”(첫째 단원) 하십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둘째 단원) 하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네가 탕감 받은 것 같이 다른 사람을 탕감해주어라”(셋째 단원) 하십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 갈 것입니다.

첫째 단원(1-14) 낮아지는 자가 큰 자니라

둘째 단원(15-20)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셋째 단원(21-35) 탕감 받은 것같이 탕감해주어라

첫째 단원(1-14) 낮아지는 자가 큰 자니라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1).

① 18장을 말씀하게 된 동기는 제자 중에 누군가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1) 하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느 시점에선가 꼭 잡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12명이나 되고, 교회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인데 타락한 근성으로 인하여 서로 높아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현대교회에 있어서도 중대한 적실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②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위에 오르실 것이라(20:20-28)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두 가지로 답변을 하십니다. 먼저, ㉠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3). 제자들은 천국은 맡아놓은 것으로 여기고, “누가 크니이까” 하고 물었는데, 주님은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4) 하십니다.

③ 주님 말씀 중에는 “어린아이”라는 말이 네 번(2, 3, 4, 5), 소자(小子)라는 말이 세 번(6, 10, 14)이나 등장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온통 “어린아이”에 쏠려있는 듯이 여겨집니다. 그렇

습니다. 떠나셔야 할 때가 가까워 올수록 주님의 관심은 두고 하게 될 “어린아이” 같은 교회에 쏠려있는 것입니다. 천국(天國)을 좁히면, 천당(天堂)이 됩니다. 그리고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함께 살아가는 한 가정과 같은 것이 천당입니다. 그래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시는 것입니다.

④ “돌이켜”, 라는 말은 돌아서라, 즉 회개를 의미합니다. 큰 자가 되려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어린아이같이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 엄마 품에서, “고요하고 평온함”(시 131:1)을 누리고 있는 모습, ㉡ 엄마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치마폭을 붙잡고 “붙좃는”(룻 1:14) 광경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는 것입니다. 들어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4) 하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도 이를 아노라 하고 설교하는 자들이 총회, 노회, 당회에서 큰 자가 되려고만 하다니.

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5) 하십니다. 주님은 잡히시기 이틀 전에도,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25:40) 하셨습니다. 이는 목회적인 “돌봄, 섬김”을 가리킵니다. 누가 크냐 하고 주장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하십니다. “실족은 영접”의 정반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실족을 당한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올 정도로(6) 비참해지고, “실족케 한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7) 하십니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7중)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성도들을 실족시킬만한 위험한 장애물들로 가득합니다. 여기에 사탄의 사악성과 인간의 미련함이 드러납니다.

⑥ 8-9절은 산상설교에서도 하신 말씀인데 문맥이 전연 다릅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8),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9) 하신 말씀이, 산상설교에서는 “율법을 온전케 하려 함”(5:17)이라는 신학적인 문맥에서 주어졌으나, 본문에서는 “실족케 하지 말라”는 윤리적인 문맥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네 눈, 입, 손, 발, 등이,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시키는 도구로 사용이 되거든 차라리 찍어버리고, 빼어 버리라는 단호한 말씀입니다. 소자 하나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셨으면 이토록 말씀하셨을까요?

⑦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10). 이 말씀을 대하면서 “천사”에 한 눈을 팔아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자를 구속하여 주신 주님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서 그 소자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롬 8:34) 때문입니다. 천사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 볼 때에 소자 하나라도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⑧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12상) 하고,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12중) 하십니다. 왜 길을 잃게 되는가? 연약함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를 아시고 인정을 하십니다. 그럴 경우 교회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13) 하십니다.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잃지 않으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격렬함이 나타납니다.

⑨ 14절은 본 단원의 결론인데,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13-14) 하고 결론을 맺으십니다. “소자” 하나에 향한 관심이 얼마나 지극한가를 아셨습니까? ㉠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5) 하십니다. ㉡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10) 하십니다. 결론은, ㉢ “소자 중에 하나를 잃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14) 하십니다. 소자 하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를 구속하신 주님과 천사들의 관심이 쏠려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소자 하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라는 부탁입니다.

둘째 단원(15-20)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요”(15).

① 다시 한번 상기시키지만, 18장 말씀은, 십자가를 담당하기 위해서 고향 가버나움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직면해야할 문제들에 대한 교훈임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15상) 하십니다. 이는 앞에서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7중) 하신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를 실족시키려 하나,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만 하는가? 한마디로,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15하) 하신 “얻음”에 있습니다.

② 15-16절은 교회 권징조례(勸懲條例)의 근간(根幹)으로 삼는 말씀입니다. 범죄한 형제를 교회는 어찌하여 권징(勸懲)해야만 하는가? ㉠ 목적(目的)은 “교회의 거룩을 지킴”에 있고, ㉡ 동기(動機)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고, ㉢ 목표(目標)는 “형제를 얻음”에 있는 것입니다.

③ 그러면 권징의 방법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범죄하여 실족하려는 형제도 얻고, 교회의 성별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하라” 하십니다. “만일 들으면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15하) 하십니다. ㉡ “만일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16) 하십니다. ㉢ “만일 그들(증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17), 즉 출교(黜敎) 조치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권징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교회 권징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런데,

④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18)는 엄숙한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 권징이 시행되지 않으면 참 교회가 아니다 하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 현대교회는 권징이 시행도 되지 않고, 시행을 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형편입니다. 이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당하게 되면 교회를 옮기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매듭을 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와 그에 상응하는 근신입니다.

⑤ 그리하여,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19) 하십니다. 무슨 뜻인가? 문맥적으로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하라”(15) 하신 말씀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에 순종하여 진심으로 회개하고, 두 사람이 손을 마주잡고 용서를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즉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⑥ 그러므로 본 단원의 결론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20) 하십니다. 이는 권징의 문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개별적으로 택하심과, 부르심과, 거듭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단 태어나면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로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고전 12:26)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최소단위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두 몸이 한 몸을 이루면, 그것이 최소단위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하나 태어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가정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드리는 가정예배에도, 감사하는 식탁에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광스러움을 인식한다면 소자 하나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어찌 그를 잃을 수가 있으며, 실족시킬 수가 있단 말인가?

셋째 단원(21-35) 탕감 받은 것같이 탕감해주어라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21).

① 이는 15절에서,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신 것과 관련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용서”의 중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 번까지 용서해주라 한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을 뛰어 넘어,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은근히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②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22) 하십니다. 이를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490번이 되지만 주님의 취지는 무한(無限)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가 이어서 나오는 “일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납니다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으로 용서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제아무리 도량이 큰 양 여겨도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용서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③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계(會計)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23) 하십니다. ㉠ 최우선적으로 명심해야 할 점이 “회계”(會計)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25장에서도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갔던 임금이 돌아와, “저희와 회계 할새”(25:19)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최후심판을, 총결산에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 일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27) 하십니다.

④ 이점에서 “일만 달란트”와 “일백 데나리온”을 비교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만 달란트”란 당시의 인식수준으로는 천문학적 수치로 무한을 나타내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지불된 것이 일만 달란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⑤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판 하나를 만나”(28상) 합니다. 일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자신도 탕감해주려고 찾아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불들고 목을 잡고 가로되 갚으라”(28하)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특별

히 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이란 “일만 달란트”의 무게는 실감할 수가 없어도, “일백 데나리온”의 가치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백 데나리온”의 무게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노동자가 100일을 수고해야 얻을 수 있는 액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백 데나리온”은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 듯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만 달란트와 백 데나리온의 비교

① 누군가 제게 그렇다면 일만 달란트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묻는다면 저는 반문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탕감 받은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하고요. 이를 실감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일만 달란트와 일백 데나리온을 비교하기를 “250년 대 100일, 60만 분지 1”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용서해주지 못하고 있는 어떤 형제의 죄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대신 지불하신 당신의 죄 값을 비교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② 이를 알았기에 바울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후 1:15) 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엡 4:32) 하고 권면합니다.

③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33) 하십니다. 백 데나리온 빛진 자를 찾아가서 탕감해주었다면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와 다른 점은 “일만 달란트” 탕감함을 받았다는 그 가치를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그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자유함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진정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롬 1:14, 고전 9:16) 하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④ 명심할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그 중들과 회계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23) 한, “회계”(會計)할 때가 온다는 점입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최후심판 때 되어질 일입니다. 우리가 백 데나리온 빛진 형제를 용서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는가?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리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34-35)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알고 믿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교회 내에도 많다는 것입니다.